

Environmental

2024 ESG Trend 10

제공일시 2024 01 19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Social

Governance

2024 ESG Trend 10

제공일시 2024 01 19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6. ESG와 DX(디지털 전환)

“ESG 규제 강화로 인한 데이터 관리 수요 증가…디지털 ESG 플랫폼 성장세 뚜렷”

Attractive Opportunities in ESG Reporting Software Market



ESG데이터 시장 전망/Markets and Markets

글로벌 ESG 공시 규제 강화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기업 ESG팀이 관리해야 할 데이터 포인트의 숫자도 늘고 있다.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필립스(Phillips)에 따르면 “ESRS의 기준으로 자사가 공시하고 있는 지속가능성데이터 포인트 950여 개를 검토한 결과, 약 30% 정도만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또한 ESRS기준의 요구사항으로 인해 데이터 포인트의 숫자도 950개에서 1144개로 늘어났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내부 인력만으로 1000개가 넘는 데이터 포인트를 측정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ESG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수요와 투자가 폭증하고 있다.

시장 리서치 전문업체 마켓앤마켓(MarketsandMarkets)에 따르면, 글로벌 ESG 공시 및 데이터 플랫폼 시장규모는 2022년 7억달러(약 9300억원)에서 2027년 15억달러(약 2조원)로 2배 가량 상승할 전망이다. 또한 데이터 기업 피치북에 따르면, 탄소회계 스타트업에 대한 자본투자는 2020년 6000만달러(약 784억원)에서 2022년 7억6700만달러(약 1조27억원)로 급증했다. 2023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서, 올해 이 부문에만 3억3300만달러(약 4353억원)가 투자됐다.

국내에서도 회계법인, 컨설팅 업체, ESG평가기관 등이 ESG공시 플랫폼을 내놓았으며, SI기업에서는 맞춤형 ESG플랫폼 제작을 도모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 컨설팅 등의 지속가능성 서비스보다 ESG 디지털 솔루션에 더 많이 투자할 것”

Figure 8
More companies are planning to increase spend on software vs. managed services

Q: In your estimation, compared to today's spend, how will spend on news and information resources, tools, and/or software solutions change for companies like yours, in the next 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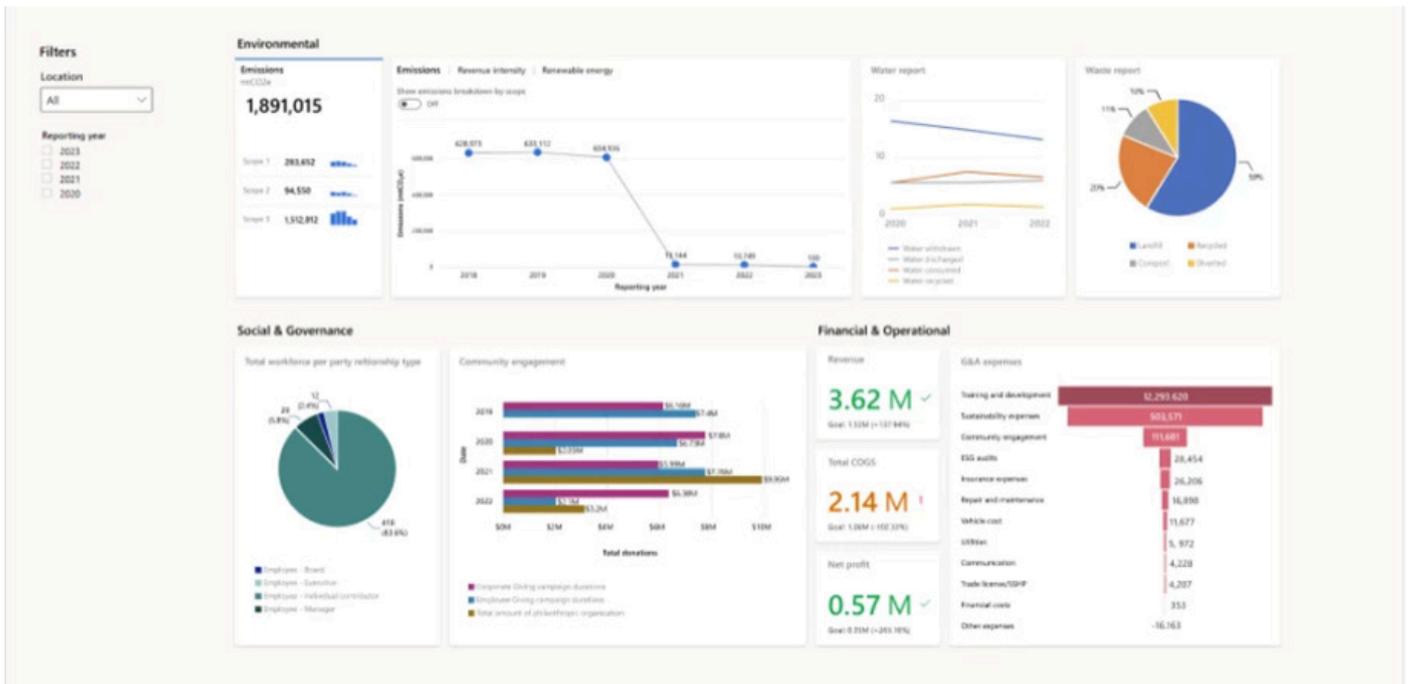


(그림) 주요 글로벌 기업 207곳의 ESG소프트웨어 vs. 지속가능성 서비스에 대한 투자 비중/Reuters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ESG 디지털 플랫폼의 유용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진행 중에 있다. 로이터 통신의 2023년 기업 ESG 설문 조사결과에 따르면, 유럽과 미국의 주요 글로벌 기업 207곳은 지속가능성 서비스(컨설팅, 감사, 보고서 작성 등)보다 ESG 디지털 솔루션 분야에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설문대상 기업의 ESG디지털 솔루션 지출 비중은 44%, 지속가능성 서비스 지출 비중은 56%이지만, 미래에는 디지털 솔루션 쪽 지출 비중을 55-59%까지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현재 제3자 기업이 제공하는 ESG 관리 솔루션을 사용하는 기업은 무려 91%에 달했다. 특히 약 61-74%의 응답자들이 ESG솔루션을 매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다수의 기업들이 외주 서비스를 통해 비용을 지출하거나 기업 내부에서 수동으로 ESG 데이터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ESG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응답했다.

“디지털 ESG 플랫폼의 핵심은 AI, 빅데이터 관리 통한 ESG 데이터 통합 관리와 리스크 파악”



마이크로소프트의 ESG 데이터 통합 대시보드/ Microsoft

ESG 규제 강화로 인해 스코프3 배출(Scope 3-공급망 간접배출), 공급망 인권 등 ESG 데이터의 관리 범위가 넓어지면서 디지털 플랫폼 또한 공시를 넘어 고도화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PwC가 제시한 ESG 데이터 플랫폼의 핵심 분야로는 ▲데이터 관리의 중앙화 ▲데이터 측정 자동화 ▲데이터 분석을 통한 리스크 파악 및 행동 개선이 있다.

먼저 데이터 관리 중앙화는 광범위한 데이터를 측정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는 데에 필요한 핵심 기능이다. 현재 많은 기업에서 ESG팀이 각 부서에 개별적으로 연락해 ESG관련 데이터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 문제로 인해 데이터가 누락되거나 측정방식오류로 인해 잘못된 데이터를 전달받는 사례가 발생한다.

설상가상으로 공급망 실사법과 ISSB 기준이 발효 된다면, 수많은 협력업체의 ESG 데이터를 수령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때문에 온라인 포털이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를 수령하고, 대시보드를 통해 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두번째는 데이터 측정 자동화다. ▲IoT센서를 통한 데이터 자동 측정 ▲AI기반 내외부 데이터베이스(ERP, 국가 전과정목록(Life Cycle Inventory) 데이터베이스 등) 활용 자동화 ▲API, 웹스크래핑 등을 활용한 계산 자동화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를 통해 협력사, 글로벌 사업장 등 수천여 개에 달하는 데이터 포인트를 원활하게 측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분석을 통한 리스크 파악 및 행동 개선이다. 일부 ESG 디지털 플랫폼은 AI를 통해 기업 밸류체인 내 환경 및 사회 영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핫스팟(Hotspot) 혹은 전체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병목현상(Bottleneck) 발생 지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추천행동을 제시한다.

“ESG통합 관리 솔루션에서부터 탄소회계,공급망 실사와 같은 특화 솔루션까지… 다양해지는 ESG솔루션”



Sourcemap의 공급망 맵핑 화면

ESG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솔루션이 시장에 나오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등의 글로벌 IT기업의 경우, 자사의 AI 및 데이터관리 역량을 활용한 ‘올인원(All-in-One)’형태의 통합 ESG 솔루션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공시, 공급망실사, 탄소회계 등 하나의 분야에 특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솔루션은 기능이 단순하거나 제한적인 대신 기업의 특정 니즈에 집중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타트업계에서 각광받고 있는 ESG 디지털솔루션 분야는 탄소회계와 공급망 실사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기업들이 규제 대응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파리에 본사를 둔 탄소회계 스타트업 그린리(Greenly)는 시리즈A 라운드에서 3200만달러(약 418억원)가량의 투자를 유치했고, 미국의 공급망 맵핑 및 모니터링 스타트업 소스맵(Sourcemap)은 시리즈B 라운드에서 2000만달러(263억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PWC- ESG 디지털 전환 보고서

<https://www.pwc.com/mt/en/publications/technology/esg-digitisation.html>

투스 로이터- The State of Corporate ESG 2023 보고서

<https://www.thomsonreuters.com/en-us/posts/wp-content/uploads/sites/20/2023/11/The-State-of-Corporate-ESG-2023.pdf>

Markets and Markets- ESG공시 및 데이터 플랫폼 시장 전망

<https://www.marketsandmarkets.com/Market-Reports/esg-reporting-software-market-173110129.html>

그린리 홈페이지

<https://greenly.earth/en-us>

소스맵 홈페이지

<https://sourcemap.com/>

임팩트온 참조기사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216>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108>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7007>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050>